

춡다 vs 차갑다 vs 시원하다

기온이 낮다(날씨, 공기) · 온도가 낮다(손에 닿는 것) · 기분 좋게 서늘하다, 상쾌하다

날씨와 물의 차가움을 같은 말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지만, 한국어는 구별합니다. 춡다는 몸으로 느끼는 공기의 차가움이고, 차갑다는 손에 닿는 물건의 차가움이며, 시원하다는 기분 좋은 서늘함입니다.

한눈에 비교

단어	핵심 의미	뉘앙스	자주 쓰는 형태
춡다	기온이 낮다(날씨, 방, 몸으로 느끼는 느낌)	주위의 공기; 불쾌한 느낌입니다. ㅂ 불규칙: 추워요.	날씨가 춡다 방이 춡다
차갑다	온도가 낮다(손에 닿는 것)	물, 얼음, 손, 바람; 쌀쌀맞은 성격에도 씁니다. ㅂ 불규칙: 차가워요.	물이 차갑다 손이 차갑다
시원하다	기분 좋게 서늘하다, 상쾌하다	기분 좋은 서늘함; 속이 풀리는 음식이나 후련한 느낌에도 씁니다.	바람이 시원하다 시원한 음료

차이점

- 공기의 온도 vs 물건의 온도.** 날씨가 추워요 ○ / 날씨가 차가워요 ×. 물이 차가워요 ○ / 물이 추워요 ×. 바람은 피부에 닿는 것이므로 바람이 차가워요도 괜찮습니다.
- 시원하다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시원하다는 서늘함이 기분 좋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시원해요, 시원한 맥주. 지나치게 차가우면 춡다나 차갑다로 바꿔 씁니다. ‘조금 덜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 온도 이외의 시원하다.** 한국인은 국물이 깔끔하고 속이 풀리는 뜨거운 국을 시원하다고 합니다: 국물이 시원해요. 후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속이 시원해요 (속이 후련함).
- 쌀쌀맞은 사람은 차갑다.** 쌀쌀맞은 성격에는 손에 닿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씁니다: 성격이 차가워요 ○ / 성격이 추워요 ×.

문장	춡다	차갑다	시원하다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____.	◎	×	×
얼음물이 너무 ____ 이가 시려요.	×	◎	×
더운 날에는 ____ 맥주가 최고예요.	×	○	◎
가을바람이 ____ 기분이 좋아요.	×	△	◎
표정이 좀 ____ 화났어요?	×	◎	×

◎ 자연스러움 ○ 가능 △ 어색함 × 틀림

한 걸음 더

뜨거운 쪽도 같은 원리입니다: 덥다 (공기가 더움), 뜨겁다 (손에 닿는 것이 뜨거움), 따뜻하다 (기분 좋게 따스함). ‘추워졌다’는 -아/어지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연습 문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 춡다, 차갑다, 시원하다

- 코트를 입으세요. 밖이 많이 ____.

정답 추워요 — 바깥 날씨가 차가움 → 춡다.

- 손이 얼음처럼 ____.

정답 차가워요 — 손에 닿는 것이 차가움 → 차갑다.

- 더운 날 에어컨을 켜니까 ____ 좋아요.

정답 시원해서 — 더위를 식혀 주는 기분 좋은 느낌 → 시원하다.

- 눈이 오고 바람도 불어서 너무 ____.

정답 추워요 — 날씨를 몸으로 느낌 → 춡다.

- 그 사람은 성격이 좀 ____ 잘 웃지 않아요.

정답 차가워요 — 쌀쌀맞은 성격 → 차갑다.

예문

- 1 밖이 너무 추워서 코트를 입었어요.

- 2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요.

- 3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좀 꺼내 주세요.

- 4 에어컨을 켜니까 방이 시원해요.

- 5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어요.

- 6 국물이 정말 시원하네요.

자주 하는 실수

× 오늘은 날씨가 차가워요.

○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추운 날씨는 춡다이고, 차갑다는 손에 닿는 것에 씁니다(차가운 바람을 말하는 바람이 차가워요는 괜찮습니다).

× 물이 너무 추워요.

○ 물이 너무 차가워요.

손에 닿는 것이 차가우면 차갑다이고, 춡다는 공기나 몸으로 느끼는 느낌입니다.

× 오늘은 너무 시원해서 코트를 입었어요.

○ 오늘은 너무 추워서 코트를 입었어요.

시원하다는 항상 기분 좋은 서늘함이며, 외투가 필요할 만큼 차가우면 춡다입니다.